



보건복지부
 질병관리본부

보 도 참 고 자 료

배 포 일	2018. 5. 9. (총 2 매)	담당부서	전화
질병관리본부 과장 / 담당	홍정익 / 김성순	위기대응총괄과	043-719-7190/7191
서울특별시 과장 / 담당	박유미 / 최선미	보건의료정책과	02-2133-7505/7535
강남구보건소 과장 / 담당	박응순 / 김길주	의약과	02-3423-7140/7141
서울시보건 환경연구원 과장 / 담당	이집호 / 홍채규	감염병검사팀	02-570-3415/3416

강남구 소재 의료기관 이상증상자 발생 관련, 역학조사 진행 중

- 질병관리본부(본부장 정은경)는 5월 7일(월) 강남구 소재 의료기관에서 시술을 받은 다수의 환자에서 이상증상이 발생했다는 신고에 따라, 식품의약품안전처, 서울시청, 강남구보건소, 서울시보건환경연구원, 서울강남경찰청 등 관계기관 합동으로 원인 파악을 위한 조사에 착수했다고 밝혔다.
- 해당 의료기관의 5월 7일 내원환자 29명을 대상으로 조사하였으며 그 중 20명*은 발열, 어지러움, 혈압 저하, 오심 등을 호소하였고 모두 프로포폴을 투여 받은 것으로 밝혀졌다.

< 증상자 모니터링 현황 (5.8. 20:00 기준) >

	입원			퇴원	계
	중환자실	일반병실	응급실		
환자수(명)	7	9	1	3	20

< 증상자 연령별 현황 (단위 : 명) >

	20대	30대	40대	계
환자수(명)	6	12	2	20
남성	0	1	0	1
여성	6	11	2	19

- 증상이 없는 9명 중 1명은 프로포폴을 투여 받았고, 8명은 투여 받지 않은 것으로 확인하였다.
 - 질병관리본부는 주사제, 시술준비과정 등에 대해 해당 의료기관 종사자를 면담조사하고, 5월 7일 내원한 29명에 대한 의무기록을 검토하여 투약 현황 등을 조사하고 있다.
 - 서울시와 강남구 보건소는 5월 1일 이후 해당 의료기관 내원자의 증상발생 모니터링을 실시하고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의약품 완제품을 수거하여 제품 오염에 대해 조사를 시행하고 있다.
 - 또한 해당 의료기관에서 사용한 개봉 주사제, 프로포폴, 주사기 등 총 41종의 검체를 채취하여 서울 보건환경연구원이 미생물 검사를 진행 중이며, 치료의료기관에서 혈액 배양검사를 진행하고 있다.
 - 질병관리본부는 현재까지 감염 또는 기타 사고 등 모든 가능성을 열어놓고 조사 중이며, 미생물 검사를 계속 진행하면서 신고일 이전 진료자 조사, 입원환자 경과 관찰 및 추가 환자 발생감시 등 관계기관과 협조하여 정확한 원인을 규명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.
- ※ 이 자료는 관련 발생 상황에 대한 정보를 신속히 공개하기 위한 것으로, 추가적인 역학조사 결과 등에 따라 수정 및 보완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.